

keri 경제동향과 전망

1996년 6월

동향과 전망

제 1 장 국내경제	5
제 2 장 해외경제	33
제 3 장 최근 경제의 평가와 경제운영방향	43

부록

경제정책정보	51
주요경제통계	56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홍보실
Public Relations Dept. of KIERI

동향과 전망

제1장 국내경제

1. 경기 및 성장
2. 민간소비
3. 고정투자
4. 대외거래
5. 환율
6. 물가
7. 통화금융
8. 금리 및 자금사정

제2장 해외경제

1. 주요국의 경기 및 성장
2. 국제환율·금리
3. 국제원자재가격

제3장 최근 경제의 평가와 경제운영방향

1. 최근 경기추이의 판단 및 향후 전망
2. 거시경제운영의 평가와 정책운용방향

제 1 장

국내경제

1. 경기 및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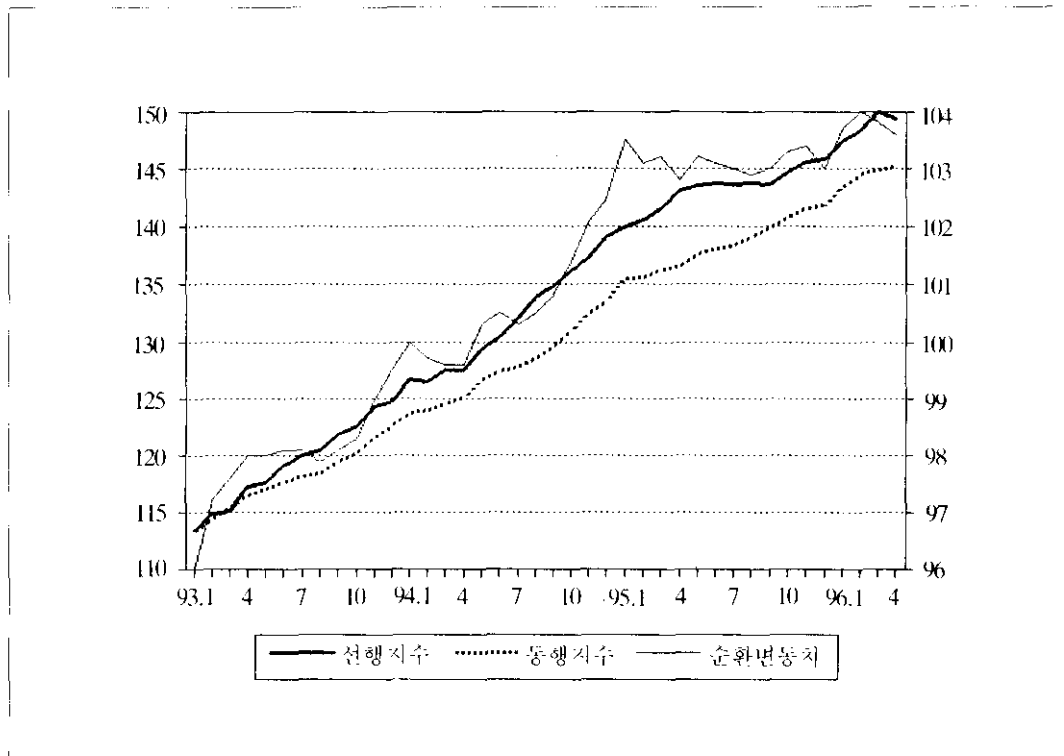
(1) 96년 1/4분기 및 최근 경제실적

- 한국은행이 지난 5월 발표한 1996년 1/4분기 국민계정(잠정)에 의하면 우리경제는 7.9%(이하 GDP기준)의 성장률을 나타냄으로써 지난 4/4분기중(6.8%)의 낮은 성장추세로부터 탈피함.
- 1/4분기중 경제성장세의 회복은 지난 4/4분기중 위축되었던 최종소비지출 증가세가 95년 평균수준(7.2%)에 달하고 엔저로 둔화추세에 있는 수출이 여전히 20%를 상회하는 증가세(24.1%)를 나타낸 가운데 재정사업의 조기집행으로 건설투자가 10%나 증가한 데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됨.
- 생산면에서는 제조업이 주로 수출증가에 힘입어 성장률에 가까운 7.8%의 생산증가세를 나타내었으며 서비스업은 유틸리티,물류 및 통신부문을 중심으로 그리고 건설업은 재정사업의 조기집행에 따른 건설업의 활기로 각각 9%내외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농림어업부문은 지난 4분기보다는 높으나 전년동기보다는 낮은 2.0%의 성장률을 나타내었음.
- 2/4분기들어 두달동안 수출증가세가 5%수준으로 급격히 둔화되고 있으나 국내수요의 지지로 전반적인 산업활동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둔화추세를 나타냄.

동향과 전망

- 경기종합지수중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3, 4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선행지수도 4월중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나 동행지수는 상승추이를 지속하고 있음.

〈그림 1〉 최근 경기종합지수 추이



- 4월이후 경공업부문의 생산이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산업생산도 재고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8%대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달러표시 수출증가세가 5%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물량기준 출하증가는 4월중 15.2%에 달해 내수둔화속에서도 비교적 활발한 생산활동으로 80%를 상회하는 설비가동률(4월중 82.8%)을 유지하고 있음.

- 최근 들어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를 기반으로 한 산업활동이 경기연착륙을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상수지적자가 빠르게 확대됨으로써 대외거래 불균형이 거시정책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무역수지외에 무역외 및 이전수지의 적자도 증가세를 지속함으로써 올해들어 4월말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이나 늘어난 65.6억불에 달하였음.
- 엔화 가치가 5월말 현재 지난해 동기에 비하여 30%절하되고 원화에 대해서도 20% 절하됨으로써 일본 상품과 경쟁하는 우리의 수출주력품목들의 수출둔화가 지속되는 한편 설비투자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입증가세가 수출증가세를 상회함으로써 무역적자가 지난해 해보다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음.
- 국제시황이 좋지 않은 반도체와 더불어 자동차, 전자, 조선 및 기계류 등 주력수출상품들이 급격한 엔저로 2/4분기중 5~6%의 낮은 증가에 그친 반면 수입은 설비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2/4분기중 11%내외의 증가세가 예상됨으로써 상반기중 무역적자는 55억불 그리고 여행수지적자, 로열티 지급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무역외수지 및 이전수지의 적자폭도 33억불에 달해 경상수지적자는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규모인 88억불내외에 달할 전망이다.
- 수출과 함께 경기확장국면을 주도했던 설비투자는 지난 4/4분기중 15% 그리고 올 1/4분기중 43%의 낮은 증가세를 기록한데 이어 2/4분기중에도 수출부진이 예상보다 심화됨에 따라 당분간 설비투자추이의 회복세는 예상되지 않음.
- 지난해 하반기중 비주거용 건물건설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높은 증가율(11.2%)을 기록하였던 건설투자는 신장세가 올 1/4분기중에도 이어져 그 증가율은 10.0%에 달했으나 2/4분기이후 건물건설의 위축과 조기발주가 끝나감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은 올해 발주할 공공사업 5조1천억원중 1분기에 1조3천3백억원, 2분기에 1조7300억원을 조기발주 및 계약단축형태의 발

동향과 전망

주를 주내용이며 연간 발주량의 60%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추경편성 집행이 없는 한, 하반기중 발주물량은 그만큼 감소가 예상된다.

- 지난 해 지속적인 경기확장과 가계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세를 유지한 민간소비지출은 내구재와 준내구재에 대한 지출이 모두 위축됨으로써 지난 4/4분기중 7.1%의 증가세가 그친 데 이어 올 1/4분기에는 7.5%로 소비심리의 회복세를 반영함. 2/4분기중에는 이같은 소비심리의 회복과 더불어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보다 높은 임금상승추이와 4월 총선을 전후한 소비증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1/4분기수준의 소비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
- 국내물가는 최근 물가상승요인중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는 해외원자재가격이 95년중 상승세가 꺾인데다 5월까지 공공요금의 상승률도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95년 5월(생산자물가 5.2%, 소비자물가 5.1%)이후의 물가안정추이가 지속되어 왔으나 2/4분기들어 이상저온에 따른 일부 농수산물가격의 일시적 상승에 따라 소비자물가가 다소 올랐음.
- 2/4분기 현재 생산자물가(2.8%)는 전년동기(5.9%)에 비해 현저히 안정되었으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비 5.0%내외의 상승이 예상됨으로써 지난해와 비슷한 상승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지난해 임금비중이 큰 건설업과 (정부)서비스부문의 디플레이터가 높게 나타나 이들 부분을 중심으로 한 물가압력이 상대적으로 컸으나 올 상반기중에는 이들 서비스가격의 상승이 낮은 추이를 보임.

(2) 96년 하반기 및 연간전망

- 하반기중 우리경제는 연초이래의 국내외수요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원화환율의 절하에 따른 수출가격경쟁력 회복 효과도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장감속

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상반기중 적정성장수준을 지지하였던 재정투자의 조기집행과 1/4분기중의 높은 수출증가 등의 요인이 하반기중에는 예상되지 않고 엔화가치는 여전히 약세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성장률은 6.7%내외로 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됨. 이에 따라 96년중 연간 경제성장률은 7.0%내외로 전망됨.

- 하반기중 수출과 투자는 2/4분기보다는 높으나 상반기보다는 낮은 수준의 증가세가 예상됨으로써 민간소비지출 증가세에 의지하는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됨.
- 수요면에서는 상반기중 이루어진 원화가치의 절하(95년말 대비 3~4%)의 효과가 적으나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일부 품목의 시장개척노력이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수출증가세가 2분기의 5~6%수준에서 하반기에는 11~12%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투자조정기에 들어선 설비투자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건설투자도 공공투자의 조기집행이후 추가적인 확대요인이 없어 하반기중 투자(고정자본형성)증가율이 7%를 밑돌 전망이다.
- 하반기중 수출증가세가 2분기보다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미 상반기중 증가세로 돌아선 플라스틱(21.5%,5월까지 통관기준 수출증가율), 타이어 및 튜브(24.9%), 섬유직물(7.4%) 등 대일 비경쟁품목과 상반기중 소폭 절하된 원화가치에 힘입은 수출증대효과 등에 따른 것임.
- 민간소비의 경우, 경기수축국면임에도 불구하고 96년중 명목임금상승률이 95년보다 오히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리고 소비고급화와 소비관련금융의 가용성 증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함으로써 하반기중 성장을 지지하는 중요한 수요부문이 될 것으로 판단됨. 최근 소비지출중 서비스 관련지출의 비중이 늘어 95년중 41.6%로 40%를 넘어섰으며 이미 50%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선진국의 예를 볼 때 서비스관련지출의 증대가 예상됨.

동향과 전망

- 95년중 규제완화와 일부 정책지원으로 그리고 상반기중에는 재정부문의 조기집행에 따라 다소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건설투자부분은 지난 해 하반기이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정사업의 발주에 따른 효과가 감소하고 주택경기의 부진이 이어짐에 따라 2/4분기이후 성장세의 둔화가 예상됨. 이는 사회간접자본투자에 대한 정부예산이 95년의 6조 6270억원보다 23.2%늘어난 8조 1682억원(도로,철도,항만 등에 대한 예산배정)으로 이에 상응한 토목건설부분의 투자증가가 예상되나 건설경기주기상 상승국면으로의 전환이 기대되고 있는 주택건설부분은 누적된 미분양주택의 규모가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96년중 큰 폭의 증가가 기대되지 않기 때문임.
- 부문별로는 주택부분이 미분양주택의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반적인 경기심리의 둔화에 따른 상업용 및 공업용 건축물도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건물건축부분이 3%내외의 낮은 증가가 예상됨. 소폭이나마 증가세가 예상된 것은 재건축활동이 하반기중에도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임. 지난 해 하반기이후 건설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공공공사의 영향으로 토목건설부분의 투자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하반기중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는 전반적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슷한 '상반기 상승, 하반기 안정' 추이가 예상됨. 하반기로 이월된 공공요금(특히 지자체관리 요금)과 서비스요금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상반기중 다소 올랐던 유가의 약세전환과 4분기 이후 일부 곡물가격의 하락전망 등 해외요인이 안정됨으로써 생산자물가는 3%이내 그리고 소비자물가는 5%이내 그리고 연간으로는 2.9%와 4.9%의 상승률을 각각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연간 물가상승률이 95년에 비하여 다소 높게 예상되는 것은 정부의 물가안정의지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중 예상되는 경기확장이후의 소비위주의 성장,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증대 가능성, 지방정부의 재정확보를 위한 공공요금의 인상압력, 해외자본유입 증가 등 거시적 물가압력이 상존함에 따른 것임. 이외에 95년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했

던 농산물 작황의 해거리현상과 95년에 비해 생산성향상에 의한 임금비용흡수가 제한적일 가능성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압력 등이 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임.

- 10인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부가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분기중 임금상승률은 13.7%로 전년동기의 11.4%보다 2%p정도 높아졌음. 따라서 지급기준 임금상승률은 임금타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6월이후까지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연간 임금상승률은 지난 해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 표 1 〉 96년 3/4분기 및 연간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1994	1995				199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국민총생산	8.4	9.9	9.2	9.7	6.6	8.7	7.4	6.8	6.6	6.6	6.8
국내총생산	8.6	10.0	9.7	9.8	6.8	9.0	7.9	6.9	6.7	6.7	7.0
제조업	10.4	12.9	11.3	11.7	7.5	10.7	7.8	7.5	7.2	7.3	7.4
총소비	7.0	7.9	7.3	7.2	6.4	7.2	7.2	6.9	6.8	7.0	7.0
민간소비	7.6	8.8	8.1	8.0	7.1	7.9	7.5	7.4	7.4	7.6	7.5
총고정자본형성	11.8	15.5	12.6	15.5	7.4	12.4	7.3	7.0	6.4	7.3	7.0
설비투자	23.6	25.5	18.0	22.2	1.5	15.9	4.3	5.7	5.0	7.7	5.7
건설투자	4.5	7.6	8.8	10.8	11.7	9.9	10.0	8.0	7.5	7.0	8.0
생산자물가	2.7	4.2	5.9	5.1	3.6	4.7	3.1	2.7	2.6	3.1	2.9
소비자물가	6.2	4.6	4.8	4.0	4.5	4.5	4.9	5.0	4.7	5.0	4.9
경상수지	-45.3	-32.8	-26.9	-21.3	-6.7	-87.7	-43.5	-44.3	-20.3	1.9	-106.3
무역수지	31.5	-24.9	18.2	-7.8	3.9	-47.0	-23.9	-30.8	-7.6	10.1	-52.2
수출	936.6	261.3	313.5	318.1	340.0	1232.9	315.8	336.1	351.6	379.5	1383.1
증가율	15.7	31.9	34.6	38.0	23.5	31.6	20.9	7.2	10.5	11.6	12.2
수입	968.2	286.2	331.9	325.9	336.1	1279.9	339.7	366.9	359.2	369.4	1435.3
증가율	22.4	34.5	41.5	34.0	21.0	32.2	18.7	10.6	10.2	9.9	12.1
무역외맞이진수지	-13.9	-7.9	-8.7	-13.5	-10.6	-40.7	-19.6	-13.5	-12.7	8.3	-54.1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96년 2/4분기 이후는 본원 예측치

주: 국제수지부문의 단위는 억달러

- 5월중 M_2 증가율이 1.3%p 상승한 이유는 신탁제도를 개편함에 따라 금전신탁자금이 은행의 저축성예금으로 이동한 데 주로 기인함. 참고로 금전신탁은 총통화(M_2)에서 제외되지만 저축성예금은 포함됨.
- 또한 1/4분기중 M_2+CD 평잔 증가율은 13.5%를 기록했으나 4월과 5월에는 각각 14.0%와 14.8%로 나타남.

〈 표 16 〉 최근의 통화 공급 동향(1996년)

	단위: 전년동월대비(%)				
	1월중	2월중	3월중	4월중p	5월중p
총통화 증가율(평잔)	12.5	14.8	14.6	14.0	15.3
M_2+CD 증가율(평잔)	12.4	14.1	13.9	14.0	14.8
M_1 증가율(평잔)	7.2	13.1	12.5	11.7	10.1

자료 : 한국은행

주: p는 잠정치를 의미함.

- 2/4분기중 5월말 현재 총통화(M_2)의 부문별 동향을 보면 민간부문(약 8조 7,900억원)에서는 총통화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정부부문(약 3조 2,500억원)과 기타부문(약 9,800억원)에서는 환수됨.
- 정부부문에서는 3월말 세수의 이월 및 부가가치세 수입 등으로 약 3조 5,100억원이 4월중에 환수되었으나 5월중에는 부가가치세환급 및 재정지출확대 등으로 약 2,600억원 공급됨.
- 민간부문에서는 세금납부자금 수요 등에 따른 일반자금대출 및 당좌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4월중에만 약 5조 1,800억원이 공급됨. 5월중에는 회사채 및 CP 발행 등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줄어든 반면 은행차입금이 증가하여 약 3조 6,100억원 증가함.
- 해외부문에서는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4월중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순유입이 16.7억달러로 증가하여 약 900억원의 총통화가 공급됨. 그러나 5월에는 경상

〈 표 3 〉 소비관련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1994			1995					1996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도소매판매액	8.1	8.3	8.0	8.7	7.8	7.3	7.4	7.8	8.3	7.0
도 매	10.6	8.9	9.8	7.9	7.0	6.3	6.2	6.9	6.9	5.3
소 매	5.5	7.5	6.1	9.4	8.5	8.1	8.7	8.6	9.8	8.8
내수용소비재출하	10.6	8.8	9.2	12.9	6.6	4.4	6.2	7.4	5.3	7.1
내 구 재	10.8	12.0	12.3	17.4	5.5	10.4	9.3	10.7	6.2	8.9
비내구재	10.5	7.1	7.7	10.3	7.2	1.4	4.6	5.7	4.9	6.0

자료: 통계청

(2) 96년 3/4분기 및 연간전망

- 성장률의 둔화와 함께 민간소비의 증가율도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성장률의 둔화 속도에 비해서는 비교적 완만한 둔화추이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따라 민간소비는 3/4분기중 7.4%, 연간 전체로는 7.5%의 증가율을 보이며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건조한 신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3년간 이어진 경기확장국면으로 축적된 소득증가가 민간소비의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경기에 후행하는 민간소비의 시계열적 특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더구나 최근 소비지출의 행태가 대형화 고급화되는 추세에 있고 레저 및 스포츠를 중심으로한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늘고 있는 점 등도 민간소비의 건조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동향과 전망

3. 고정투자

(1) 최근동향

<설비투자>

■ 1/4분기중 설비투자는 4.3%증가에 그쳐 지난 분기에 이어 신장세가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지속함. 자동차, 항공기, 철도차량에 대한 투자부진으로 운수장비투자(-8.5%)가 큰 폭으로 감소한데다 그동안 설비투자 증가세를 주도한 기계류에 대한 투자가 전분기(8.8%)에 이어 현저히 둔화된데 기인함.

- 이처럼 설비투자의 신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는 것은 지난 2년동안 20%를 상회하는 높은 투자증가세의 지속으로 기업의 생산능력이 확충되면서 설비부족이 어느정도 해소된 가운데 경기수축국면의 진행에 따라 민간의 투자환경이 다소 불투명해졌기 때문임.

〈 표 4 〉 최근 설비투자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1994	1995				199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설비투자	23.6	25.5	18.0	22.2	1.5	15.9	4.3
기계류	23.3	33.6	28.4	22.0	8.8	22.6	8.7
운수장비	24.1	6.8	-2.7	23.2	-11.1	2.4	-8.5

자료: 한국은행

- 국내기계수주, 기계류 내수출하 등 투자관련지표의 증가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으로 보아 2/4분기중에도 설비투자 증가율은 부진한 양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지난해 2/4분기의 설비투자증가율이 다소 낮았던 관계로 증가율 자체는 1/4분기보다는 높은 5.7%로 추정됨.

〈 표 5 〉 설비투자 관련지표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1994			1995					1996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국내기계수주	32.2	22.2	26.9	45.4	26.6	0.9	-1.5	15.8	9.7	11.7
기계류수입허가	81.2	87.4	73.6	59.4	79.8	1.7	-7.2	28.2	1.3	-41.6
기계류수입액	42.0	44.5	37.6	47.1	34.8	22.9	10.8	27.0	16.0	24.7
기계류내수출하	18.7	21.4	22.0	28.3	30.0	21.1	8.0	21.4	9.0	4.4

자료: 통계청

<건설투자>

■ 1/4분기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 비주거용 건물건설의 증가세가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큰 호조를 보여 전체적으로는 10.0%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건물건설의 경우 지금까지 건설투자의 회복세에 기여했던 공장,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건설(4.4%)의 증가세가 경기가 다소 수축되면서 둔화됨으로써 5.8%의 증가에 그침.
- 반면 기타건설의 경우 도로, 항만, 공항, 전력시설, 및 지하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공공사업의 발주에 힘입어 크게 확대되면서 20.8%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표 6 〉 최근 건설투자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1994	1995					199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건설투자	4.5	7.6	8.8	10.8	11.7	9.9	10.0
건물건설	2.2	5.3	11.3	15.3	9.9	10.5	5.8
기타건설	8.1	14.1	4.9	4.2	13.6	9.0	20.8

자료: 한국은행

동향과 전망

- 2/4분기에도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의 철도, 도로, 교량 등 토목공사의 발주호조로 국내건설수주 등 건설투자 관련지표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경기수축과 함께 비주거용 건물건설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이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1/4분기보다는 다소 낮은 8.0%의 증가율이 추정됨.

〈 표 7 〉 건설투자 관련지표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1994			1995					1996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국내건설수주	10.8	19.5	18.5	14.3	21.9	29.8	48.7	21.2	47.4	11.8
공공	11.7	20.3	17.0	27.7	-8.9	51.9	14.6	17.6	156.9	41.4
건축허가면적	14.1	17.0	-1.3	16.2	35.9	-25.6	-12.2	1.0	-7.4	-11.0

자료: 통계청

(2) 96년 3/4분기 및 연간전망

<설비투자>

- 경기하강과 함께 설비투자의 둔화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더욱이 지난 해 3/4분기의 증가율이 높았던 데 대한 상대적인 영향으로 금년 3/4분기중 설비투자 증가율은 2/4분기보다 낮은 5.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지속적인 신증설투자로 기업의 생산능력이 확충되면서 기업의 투자수요가 크게 줄어들는데다 경기하강에 따른 내수시장의 부진, 세계교역량의 둔화, 엔저의 지속 등 기업의 영업환경이 크게 악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임.

- 연중 설비투자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96년중 설비투자의 신장률은 95년보다 대폭 낮아진 5.7%가 전망됨.

<건설투자>

- 96년 3/4분기에도 건설투자는 민자유치 공공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호조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그동안 부진했던 주택건설이 소폭이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7.5%내외의 신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주택건설의 경우 그동안 주택건설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던 미분양주택이 주택시장안정대책이후 6개월간 꾸준히 줄어들면서 다소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되나 미분양주택이 여전히 12만 5천호에 이르고 있어 재건축 중심의 제한적인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8 > 미분양주택 추이

단위: 세대

	1995				1996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수 도 권	30,182	41,046	37,064	34,993	31,367	27,958	24,377	24,608
지 방	113,843	118,425	121,007	117,320	113,409	107,428	101,271	99,588
합 계	144,025	159,471	158,071	152,313	144,776	135,386	125,648	124,196

자료: 건설교통부

- 이에따라 96년중에도 건설투자는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설비투자의 둔화와 함께 공장, 사무실 등 비주거용건물의 건설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6년중 건설투자 증가율은 95년보다는 다소 낮은 8.0%가 예상된다.

< 표 9 > 설비 및 건설투자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1995					1996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설 비 투 자	25.5	18.0	22.2	1.5	15.9	4.3	5.7	5.5	7.7	5.7
건 설 투 자	7.6	8.8	10.8	11.7	9.9	10.0	8.0	7.5	7.0	8.0

자료: 한국은행, 96년 2/4분기 이후는 KERI 예측치임.

동향과 전망

4. 대외거래

(1) 최근 동향

- 수출은 4월에 전년동기대비 5.3%의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었고, 5월에도 전년동기대비 6.8%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함.
- 품목별로는 4월중 중화학제품의 증가율이 3.5%로 1/4분기의 24.5% 보다 크게 감소하였음. 이는 반도체 및 철강의 수출이 부진한 것에 기인함. 반도체의 수출증가율은 95년에 70.3%에서 96년 1/4분기에 57.1%, 96년 4월에 1.3%로 급격히 감소하였음.
- 5월중에도 반도체(-18.9%), 철강(-45.9%), 석유화학제품(-23.2%)의 수출부진으로 중화학제품의 수출은 3.7%의 감소세를 보임.
- 경공업제품은 3월에 -4.2%, 4월에 -1.0%로서 감소세를 보였으나 5월에는 3.3%의 증가율을 나타냈음.
- 지역별로는 대선진국 수출이 4월의 -6.1%에 이어 5월에도 -7.3%의 감소세를 나타냄. 대개도국 수출은 5월에 16.2%의 증가율로서 4월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름.

〈 표 10 〉 최근 수출동향

단위: 억달러, 전년동기비(%)

		1995	4월	1~4월	1996.3월	4월	1~4월	5월
전체수출		1250.6 (30.3)	101.6 (32.5)	363.5 (31.9)	117.9 (17.9)	106.9 (5.3)	423.4 (16.5)	113.7 (6.8)
품 목 별	중화학	879.1 (37.5)	69.7 (41.0)	258.6 (39.3)	86.2 (21.9)	74.8 (3.5)	306.7 (18.6)	(-3.7)
	경공업	293.5 (14.0)	25.3 (13.8)	88.9 (12.3)	23.7 (-4.2)	24.2 (-1.0)	87.8 (-1.2)	(3.3)
지 역 별	대선진국	624.2 (27.9)	50.5 (29.1)	179.6 (28.0)	53.9 (9.7)	47.4 (-6.1)	198.4 (10.5)	(-7.3)
	대개도국	626.3 (32.7)	51.1 (36.0)	183.9 (36.1)	64.0 (25.9)	59.5 (16.6)	225.0 (22.3)	(16.2)

자료: 통상산업부

- 수입은 4월에 127억불로서 전년동기대비 14.3% 증가하였고, 5월에도 14%의 증가율을 지속함.
- 품목별로는 자본재 수입이 둔화되고 있으나 원자재 및 소비재의 수입증가세가 지속됨.
- 지역별로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증가세 둔화에 따라 대선진국 수입의 증가율이 6.5%로서 총수입증가보다 낮았고, 대개도국 수입은 31%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표11 〉 최근 수입동향

단위: 억달러, 전년동기비(%)

		1995	4월	1~4월	1996.3월	4월	1~4월	5월
전체수입		1351.2 (32.0)	110.9 (37.5)	416.2 (35.9)	121.5 (4.2)	126.7 (14.3)	483.6 (16.2)	128.0 (14.0)
품 목 별	원자재	675.8 (32.6)	53.2 (32.6)	208.6 (32.6)	58.6 (1.7)	64.3 (21.1)	249.3 (19.7)	(18.0)
	자본재	535.6 (32.5)	46.5 (46.2)	165.9 (41.7)	49.7 (3.9)	48.8 (4.5)	183.1 (9.9)	(8.1)
	소비재	139.8 (27.8)	11.2 (28.6)	41.6 (31.0)	13.2 (18.2)	13.6 (22.5)	51.2 (24.1)	(17.3)
지 역 별	대선진국	915.4 (32.5)	76.3 (37.5)	281.1 (36.0)	84.4 (5.1)	84.6 (10.9)	317.8 (13.1)	(6.5)
	대개도국	435.8 (31.1)	34.6 (37.7)	135.0 (35.8)	37.1 (2.1)	42.2 (21.6)	165.8 (22.6)	(31.0)

자료: 통상산업부

- 3월에 8.4억불의 적자를 보인 경상수지는 4월에 22.1억불로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1~4월중 경상수지 적자는 65.6억불을 기록함.
- 4월중 무역수지적자는 15.1억불로서 95년 4월에 비해 9억불 증가함. 5월중 무역수지적자는 14.4억불로 전년동기에 1-5월중 무역수지적자는 95년중 무역수지적자에 근접함.
- 1~4월중의 무역외수지적자는 23.2억불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5억불 증가함. 이

동향과 전망

는 경상수지 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함.

(2) 향후전망

- 수출은 반도체, 철강 등 주력상품의 수출부진이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2/4분기에는 7.2%, 3/4분기에는 10.5%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수입은 경기의 하락으로 인한 자본재 수입감소와 원유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원자재 수입의 감소로 2/4분기에는 10.6%, 3/4분기에는 10.2%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표 12 〉 최근 국제수지동향

단위: 억달러, 전년동기비(%)

	1995	1995.4	1~4월	1996.3	4월	1~4월	5월
경 상 수 지	-88.2	-9.2	-42.7	-8.4	-22.1	-65.6	
무 역 수 지	-47.5	-5.9	-31.6	-1.3	-15.1	-39.0	-14.35
수출증가율(%)	30.3	32.5	31.9	17.9	5.3	16.5	6.8
수입증가율(%)	32.0	37.5	35.9	4.2	14.3	16.2	14.0
무 역 외 수 지	-35.1	-2.3	-11.7	-5.9	-5.8	-23.2	
이 전 수 지	-5.6	-1.0	0.5	-1.1	1.1	3.3	
자 분 수 지	135.3	10.8	35.4	20.8	31.0	80.4	
총 합 수 지	30.8	-6.1	-20.5	8.8	3.2	7.1	

자료: 한국은행

- 무역수지는 수출부진 및 수입의 꾸준한 증가에 의하여 2/4분기에는 20억불 정도의 적자를 나타내리라 예상됨. 3/4분기 이후에는 적자폭이 감소하여 연간 무역수지적자는 50억불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5. 원화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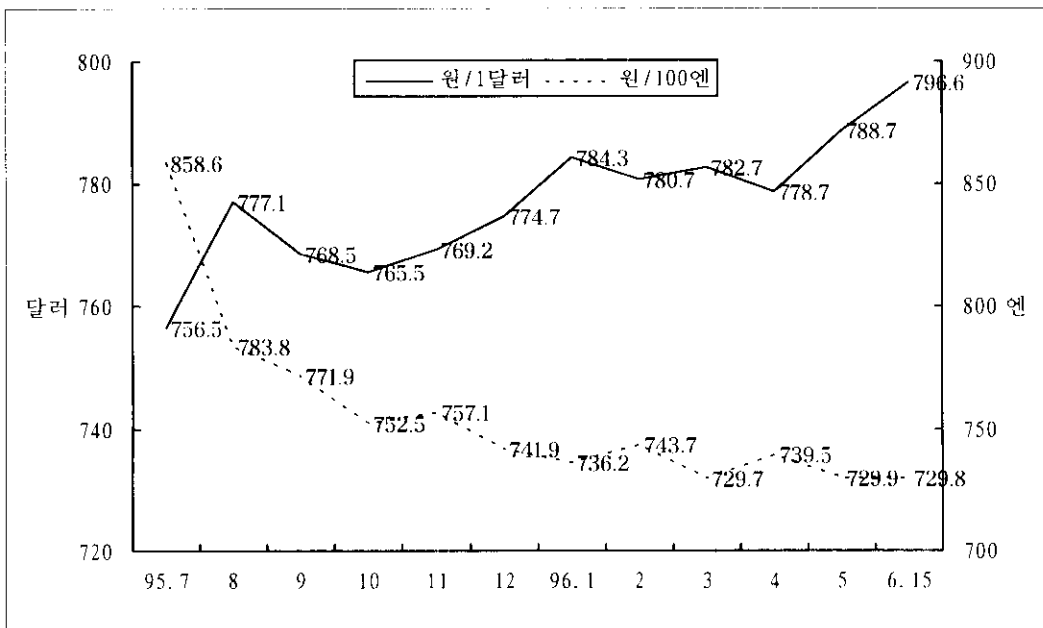
(1) 최근 동향

- 무역수지 확대에 인하여 4월 이후 평가절하하여 6월15일 현재 1달러당 797원을 기록함.

(2) 향후 전망

- 무역수지 적자폭의 감소 및 자본개방에 따른 해외자금유입등으로 인하여 2/4 분기에는 790원에 이르고, 연간 780원대에 이르리라 예상됨.

〈 그림 2 〉 최근 환율추이



동향과 전망

6. 물 가

(1) 최근동향

- 消費者物價는 1~5월중 3.5% 상승(전년말월대비)하여 전년 같은 기간(3.1% 상승)보다 다소 오름세를 보임.
- 그러나, 일시적으로 급등한 농산물부분을 제외한 공산품, 집세, 개인서비스요금 등 여타 부분은 물가가 안정되었던 작년과 비슷한 수준

〈 표 13 〉 소비자물가 부문별 기여도

단위: 전년말월대비 기여도(%·p)

	96. 1~5월	95. 1~5월
소 비 자 전 체(A)	3.50	3.13
농 산 물(B)	0.95	0.48
여 타 부 문(1-B)	2.55	2.65

- 품목별로 보면 工業製品價格의 경우 지난해의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이 時差를 두고 나타남에 따라 상승세가 이어졌고
- 年初 큰 폭으로 올랐던 農畜水産物價格이 3월 한달은 안정세를 보였으나 4월 이후 이상저온으로 일시적인 급등현상을 보여 전년동기보다 오름폭이 커짐.(금년 3~5월중 기온은 평년대비 0.1~1.4℃ 낮은 수준임.)
- 그러나 서비스價格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상승률이 둔화됨. 금년 1~5월중 서비스 가격상승률(3.8%)이 전년동기(4.4%)보다 다소 낮아진 것은 공공요금상승률 둔화(95.1~5월 6.8% -> 96. 1~5월 5.5%)에 주로 기인함.

- 生産者物價는 1~5월중 1.8% 오르는 데 그쳐 전년동기(3.3%)보다 상승세 뚜렷이 둔화됨.

〈 표 14 〉 최근 물가동향

단위: 기말월대비(%)

	1994	1995				1996			
		1~5월	상반	하반	연간	1/4	4월	5월	1~5월
소비자물가	5.6 (6.2)	3.1 (4.8)	3.1 (4.7)	1.6 (4.2)	4.7 (4.5)	2.2 (4.9)	0.7 (4.6)	0.6 (5.1)	3.5 (4.9)
농축수산물	8.3	2.4	1.2	-1.1	0.1	2.4	1.2	1.4	5.0
공업제품	2.3	1.8	1.9	1.8	3.7	1.3	0.6	0.3	2.2
서비스	7.2	4.4	4.7	2.8	7.7	2.7	0.6	0.4	3.8
생산자물가	3.9 (2.8)	3.3 (4.9)	3.4 (5.1)	0.0 (4.4)	3.4 (4.7)	1.1 (3.1)	0.4 (2.0)	0.1 (1.7)	1.6 (2.6)
농림수산물	6.3	8.4	5.5	-4.9	0.3	5.0	1.4	-0.2	6.2
공산품	3.7	2.7	3.2	0.7	4.0	0.5	0.3	0.2	1.0

주: 1) ()내는 기간평균의 전년동기대비 등락률

(2) 96년 3/4분기 및 연간전망

- 하반기에도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3/4분기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비 4.7%, 생산자물가는 2.6%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하반기로 이월된 공공요금(특히 지자체관리 요금)과 서비스요금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상반기중 다소 올랐던 유가의 약세전환과 일부 곡물가격의 하락전망 등 해외요인이 안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이에따라 96년 연간 평균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가 4.9%로 95년보다 다소 높고 생산

동향과 전망

자물가는 95년의 4.7%보다 다소 낮은 2.9%가 예상됨.

- 생산자물가의 경우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세에 힘입어 95년 2/4분기 이후 각 분기별 상승률이 5.9%, 5.1%, 3.6%, 3.1%로 낮아지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반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95년에 비하여 다소 높게 예상되는 것은 정부의 물가안정의 지에도 불구하고 경기확장 후반기의 수요압력,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증대 가능성, 지방정부의 재정확보를 위한 공공요금의 인상압력, 해외자본유입 증가 등 거시적 물가압력이 상존함에 따른 것임.
- 이외에 농산물의 헤거리현상과 상반기중 국내과급영향이 불가피한 국제곡물가격의 상승, 95년에 비해 생산성향상에 의한 임금비용흡수가 제한적일 가능성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압력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 표 15 〉 물가추이 및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1994	1995	1996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소비자물가	6.2	4.5	4.9	5.0	4.7	5.0	4.9
생산자물가	2.7	4.7	3.1	2.7	2.6	3.1	2.9

주: 96년 2/4분기 이후는 본원에측치

7. 통화금융

(1) 최근동향

- 총통화(M₂) 평잔 증가율은 지난 1/4분기중에는 14.0%를 기록했지만 4월에는 14.0% 그리고 5월에는 15.3%로 나타남.

- 5월중 M_2 증가율이 1.3%p 상승한 이유는 신탁제도를 개편함에 따라 금전신탁자금이 은행의 저축성예금으로 이동한 데 주로 기인함. 참고로 금전신탁은 총통화(M_2)에서 제외되지만 저축성예금은 포함됨.
- 또한 1/4분기중 M_2+CD 평잔 증가율은 13.5%를 기록했으나 4월과 5월에는 각각 14.0%와 14.8%로 나타남.

〈 표 16 〉 최근의 통화 공급 동향(1996년)

	단위: 전년동월대비(%)				
	1월중	2월중	3월중	4월중p	5월중p
총통화 증가율(평잔)	12.5	14.8	14.6	14.0	15.3
M_2+CD 증가율(평잔)	12.4	14.1	13.9	14.0	14.8
M_1 증가율(평잔)	7.2	13.1	12.5	11.7	10.1

자료 : 한국은행

주: p는 잠정치를 의미함.

- 2/4분기중 5월말 현재 총통화(M_2)의 부문별 동향을 보면 민간부문(약 8조 7,900억원)에서는 총통화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정부부문(약 3조 2,500억원)과 기타부문(약 9,800억원)에서는 환수됨.
- 정부부문에서는 3월말 세수의 이월 및 부가가치세 수입 등으로 약 3조 5,100억원이 4월중에 환수되었으나 5월중에는 부가가치세환급 및 재정지출확대 등으로 약 2,600억원 공급됨.
- 민간부문에서는 세금납부자금 수요 등에 따른 일반자금대출 및 당좌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4월중에만 약 5조 1,800억원이 공급됨. 5월중에는 회사채 및 CP 발행 등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줄어든 반면 은행차입금이 증가하여 약 3조 6,100억원 증가함.
- 해외부문에서는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4월중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순유입이 16.7억달러로 증가하여 약 900억원의 총통화가 공급됨. 그러나 5월에는 경상

동향과 전망

수지적자는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순유입이 3.9억달러로 감소함에 따라 약 900억원이 환수됨.

- 기타부문에서는 4월중 CD 및 통화채 발행은 증가하였으나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였던 콜차입 등의 상환으로 약 1,600억원이 공급됨. 그러나 5월중에는 금융채 및 CD의 순증발행과 통화당국의 RP규제에 주로 기인하여 약 1조 800억원이 환수됨.

〈 표 17 〉 부문별 총통화 공급 추이 (말잔 증감액 기준)

단위: 십억원

	1995		1996			
	1/4	4월	1~4월	1/4분기	4월	1~4월
총통화(M ₂)	-1,399.0	2,055.7	656.7	-2,245.9	1,922.1	-3,238.0
정부부문	-6,594.9	-1,976.2	-8,571.4	-5,824.3	-3,507.2	-9,331.5
민간부문	4,829.5	5,232.9	10,062.4	5,384.4	5,179.5	10,564.0
해외부문	2,580.5	-898.8	-295.0	196.0	86.0	281.9
기타부문	-9,013.8	1,265.0	-905.9	-2,002.0	163.8	-1,838.2

자료: 한국은행

- 은행 저축성예금은 1996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월평균 증가액이 8,055억원이었으나 신탁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5월중에는 2조 9,641억원이 늘어남. 따라서 저축성예금의 증가규모가 3.7배로 확대됨.

〈 표 18 〉 저축성예금 증가액 추이(1996년)

단위: 억원

	1월중	2월중	3월중	4월중p	1~4월중	5월중
저축성예금	-9,727	13,665	16,667	11,616	8,055	29,641
정기예금	6,438	-6,542	920	10,648	2,866	15,192
저축예금	-4,507	9,205	8,375	944	3,504	1,364
자유저축예금	-1,424	4,721	1,409	-3,518	387	-3,255
기업자유예금	-13,172	6,110	697	-4,391	-2,689	5,855
상호부금	3,232	1,682	4,810	7,241	4,241	7,081

자료: 한국은행

주: 1-4월중은 1월부터 4월까지의 월평균을 의미함.

(2) 3/4분기 및 연간전망

- 5월에 단행된 신탁제도 개편으로 인한 여파가 6월중에도 지속되어 총통화증가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임.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6월중 총통화의 증가율은 16% (평잔기준)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6월중 증가율은 연초에 정한 올해 총통화 목표범위(12월 기준:11.5% ~ 15.5%)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됨.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은 신탁제도개편이 5월중 총통화 증가율을 말잔기준으로 1.4%정도 더 상승시켰다고 밝히고 이를 당초 목표증가율에 감안하여 통화를 운영할 것으로 발표함. 이는 총통화 증가율의 목표가 약 13%와 17%사이로 수정되어 통화정책이 운용되는 것을 의미함. 한편 7월중에도 5월 및 6월과 같이 큰 폭의 총유동성(M₃) 증가가 없다면 수정된 총통화 증가율 목표대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당초 목표증가율에 비해 신축적으로 통화를 운영하겠다는 통화당국의 발표에 대한 신뢰성을 감소시키는 요인들이 있음. 먼저 국제 곡물가격 상승의 여파, 담배 및 유류에 대한 교육세 부과(7월 1일), 그리고 지방정부의 공공요금 인상계획 등과 관련된

동향과 전망

물가불안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경상수지적자가 악화된다면 통화를 경직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있음.

8. 금리 및 자금사정

(1) 최근동향

- 1/4 분기 중 자금사정은 안정적이었음.
- 1/4 분기 중의 서울 지역 어음부도율은 0.12%로 전분기(0.11%) 보다 0.01% 올랐으나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전분기보다 0.01% 하락한 0.19%를 유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부도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표 19 〉 분기별 금리 및 자금사정 동향

	1995					1996
	1/4	2/4	3/4	4/4	연간	1/4
회 사 채	12.20	12.40	12.70	13.90	12.90	11.88
쿠폰	11.20	12.00	13.30	12.80	12.30	10.48
CD	12.00	12.40	14.30	14.40	13.30	11.62
어음부도율 전국	0.20	0.21	0.20	0.20	0.20	0.19
서울	0.13	0.12	0.12	0.12	0.11	0.12

자료: 한국은행

- 주 : 1) 쿠폰금리 : 1111物 기준
 2) 회사채유통수익률 : 3年滿期 保證附社債 기준
 3) CD유통수익률 : 9111物 기준
 4) 어음부도율 : 금액기준

- 상반기중 직접금융자금조달의 실적을 보면 기업공개와 유상증자에 의한 자금조달은 줄고, 회사채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은 크게 늘어나 전체적으로 직접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이 전년 동기에 비해 44% 증가하였음.

〈 표 20 〉 기업의 직접금융조달

단위: 백만원

	1996 4/4	1995 4/4	변동폭
	1월~3월	1월~3월	1월~3월
기 업 공 개	26,400	98,130	-73.10
유 상 증 자	705,800	2,031,442	-65.26
회 사 채 발 행	8,282,650	4,330,240	91.27
전 체	9,395,200	6,516,014	44.19

- 1/4 분기 금리는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띠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보여짐.
 - 안정적인 자금 시장의 영향으로 금리는 하향세를 보이고 있음.
 - 단기금리인 풀금리는 2월말 소폭 상승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내었음.
 - 회사채 금리는 11.6% ~ 12.0% 로 12%를 넘지 않고 유지되었음.
 - CD금리는 11.5 % ~ 11.7%로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
- 2/4 분기中 금리동향은 무역수지 적자 누적으로 인한 경기의 불투명 확대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증대로 금리는 상승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 정부의 정책의 우선순위가 불확실하며, 경기진단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불분명하여 금

동향과 전망

용시장의 불안이 가중.

- 또한 무역수지 적자확대에 따른 기업의 내부 이익감소로 인해 금리상승요인 발생.
-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금리(회사채수익률)은 최근 11.8% 수준까지 상승하고 있음.

〈 표 21 〉 1/4분기 금리동향

단위 : %

	12월말	1월말	2월말	3월말	변동폭		
	A	B	C	D	B-A	C-B	D-C
콜 금 리	10.96	10.45	10.68	10.32	-0.5	0.23	-0.36
회사채유통수익률	11.65	12.01	11.88	11.76	0.36	-0.1	-0.12
CD	11.73	11.65	11.67	11.55	-0.1	0.02	-0.12

자료: 한국은행

주 : 1) 콜금리 : 1111物 기준

2) 회사채유통수익률 : 3年滿期 保證附社債 기준

3) CD유통수익률: 9111物 기준

(2) 96년 3/4분기 및 연간 전망

- 현재 11.5% 대 후반까지 상승하던 금리는 3/4 분기에는 11% ~ 11.5% 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 경기논쟁이나 정부의 정책우선순위 불투명에 의해 금리가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정부의 신축적 통화정책 천명과 기업의 설비투자수요감소등에 의해 금리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 일시적으로 12%대를 넘길 가능성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11% 대 초반에서 안정될 것

으로 예상됨.

- '96년도 금리의 연간 전망은 기준율 추가인하에 따른 금리인하효과와 경기하락에 따른 설비투자의 감소가 지속되어 금리는 10.5 % ~ 11.5%대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임.

제 2 장

해외경제

1. 주요국의 경기

1) 미 국

〈 표 22 〉 미국의 경제지표

단위: %

	GDP성장률 (전기대비연율)	무역수지 (억달러)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대비)	실업률 (%)	산업생산 (전기대비)
1994	3.5	-1,661	2.6	6.1	5.9
1995	2.1	-1,745	2.8	5.6	3.2
3/4	3.6	-435	2.6	5.6	0.5
4/4	0.9	-382	2.6	5.6	-0.0
1996. 1/4	2.8	-425	2.7	5.6	0.0
1월	2.8	-151	2.7	5.8	-0.3
2월	2.8	-126	2.7	5.5	0.9
3월	2.8	-148	2.8	5.6	-0.5
4월	-	-	2.9	5.4	0.9

자료: 한국은행 “주간해외경제”

- 미국은 95년 4/4분기에 있었던 두번에 걸친 연방정부의 부분 폐쇄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96년초의 이상 폭한 등의 경기 후퇴 요인에도 불구하고 96

동향과 전망

년 1/4분기 중 GDP성장률이 2.8%(전기대비 연율)를 기록하여 95년 4/4분기보다 크게 높아짐. 이는 민간소비, 건설투자, 정부소비 등의 증가세가 확대되어 정상수준을 회복함에 따른 것임.

- 무역수지 적자는 95년 4/4분기부터 그 폭이 감소되고 있으나 3월 중에는 148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전달보다 22억달러 확대됨. 이는 General Motors사 파업에 따른 자동차 수출감소, 유럽 경제의 회복 지연 및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출상품의 경쟁력 약화 등에 기인한 것임. 특히 1/4분기 전체 무역수지 적자액중 46.4%가 일본과의 교역에서, 21.6%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것임.
- 1/4분기중의 물가상승은 이상 한파로 인한 단기적인 수급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의 상승에 의해 주도된 것임. 이는 1/4분기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통상연초 4개월간의 평균물가상승률이 연중 가장 높아왔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의 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실업률도 4월 중에는 전월보다 0.2%p 하락한 5.4%로 95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이는 신규고용이 소폭 증가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한 데에 기인함.
- 4월 중 산업생산은 전월의 0.5% 감소에서 0.9% 증가로 돌아섬. 이는 General Motors사의 파업 종결로 자동차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목재 및 금속제품, 컴퓨터 등의 생산도 호조를 보였기 때문임.

2) 일 본

〈 표 23 〉 일본의 경제지표

단위: %

	GDP성장률 (전기대비연율)	무역수지 (억엔)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대비)	실업률 (%)	광공업 생산 (전년동기대비)
1994	0.5	123,933	0.7	2.9	0.9
1995	0.9	99,821	-0.1	3.2	3.2
3/4	0.6	17,522	0.0	3.2	1.0
4/4	0.9	24,137	-0.5	3.3	1.2
1996. 1/4	-	18,295	-0.2	3.3	1.2
1월	-	613	-0.4	3.4	3.0
2월	-	6,480	-0.2	3.3	3.3
3월	-	11,202	0.1	3.1	-2.8
4월	-	3,207	-	3.4	-

자료: 한국은행 "주간해외경제"

- 지난 3월말로 끝난 95/96회계년도의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동기 대비 23.8% 감소한 9조4천6백억엔이었으며 이로써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는 3년 연속 감소하였음. 이같은 경상수지 흑자의 감소는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소비자들의 외국산 자동차 등 수입품 구매 증가, 일본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의 경기침체, 일본인들의 해외여행 급증 등에 기인함.
- 무역수지 흑자 또한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히 4월중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동월대비 65.5%가 감소한 3,207억엔을 기록하였음. 이는 수입이 원유, 육류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30.9%나 증가한 반면 수출은 5.1% 증가에 그친데 기인함. 지역별로는 대비 무역흑자가 52.2% 감소한 925억엔, 대아시아 무역흑자가 32.9% 감소한 4,021억엔을 각각 기록함.

동향과 전망

- 실업률은 96년 1월 들어 3.4%로 최고수준을 기록하였으나 3월까지 두달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4월중에 반전되면서 지난 1월에 세워진 최고실업률 수준에 다시 도달하였음. 이는 광공업생산지수 등 각종 경기 지표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지난 4년간 침체되어 있던 일본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근로자들이 근무여건이 나은 직장을 찾아 떠나는 자발적인 실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임.

3) 독일

〈 표 24 〉 독일의 경제지표

단위: %

	GDP성장률 (전기대비)	경상수지 (억마르크)	생계비불가 (전년동기대비)	실업률 (%)	산업생산 (전기대비)
1994	2.9	-342	2.7	9.6	4.5
1995	1.9	-248	1.8	9.4	0.3
3/4	0.0	-44	1.8	9.5	-0.5
4/4	-0.5	23	1.8	9.7	0.0
1996. 1/4	-	-	1.6	10.3	-0.1
1월	-	-38	1.5	10.0	0.3
2월	-	7	1.6	10.4	-2.8
3월	-	-	1.7	10.4	2.1
4월	-	-	1.5	10.3	-

자료: 한국은행 "주간해외경제"

- 95부터 시작된 마르크화의 강세는 독일의 고임금 현상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기업도산과 국내자금의 해외유출을 가속화 시켰음. 이에 따라 96년부터 독일의 실업률은 급격히 상승하여 4월까지 계속됨.

- 경기침체와 고용부진이 계속되면서 독일의 사용자단체와 노조 및 연방정부는 투자 및 노동시장여건의 개선, 연구개발 및 직업교육 강화를 통해 2000년까지 실업자 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약에 합의하였음. 그러나 정부의 복지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공공부분의 노조 파업이 5월말에는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임으로써 경제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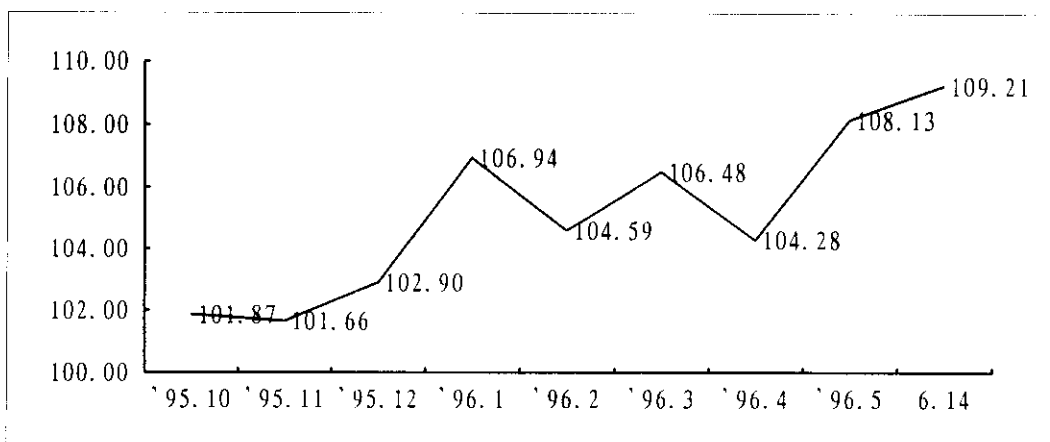
2. 국제환율, 금리

〈 표 25 〉 국제환율 추이

	1995	1996			
		1/4	4월	5월	6월
\$/SDR	1.487	1.459	1.450	1.442	1.446
¥/\$	102.90	102.14	104.28	108.13	109.21
DM/\$	1.434	1.481	1.519	1.524	1.527

주 : 각국의 현지환율, 가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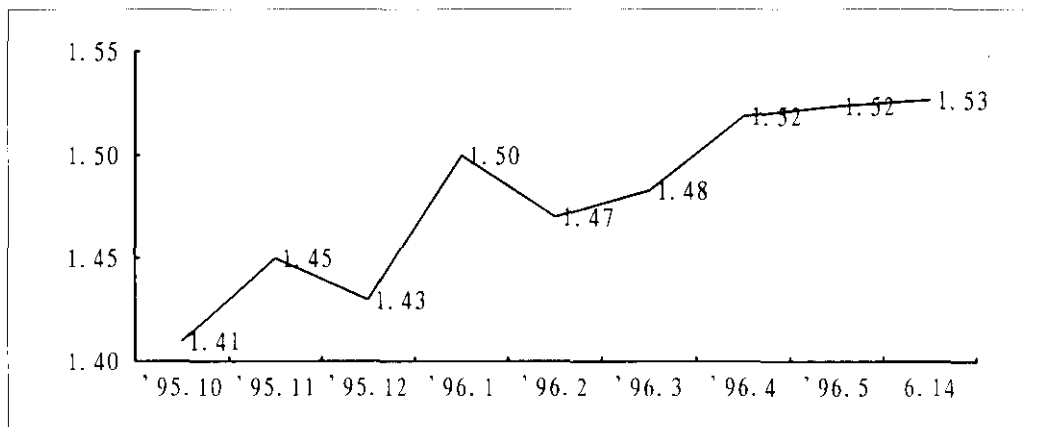
〈 그림 3 〉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동향과 전망

- 95년말부터 시작된 엔화의 약세는 96년 6월까지 계속되고 있음. 이같은 엔화의 약세기 조는 일본의 초저금리,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미국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노력, 미국채권에 대한 투자유도를 위한 달러강세유지의 필요성, 최근의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대일수출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너무기 국제외환시장에서는 엔화가 달러당 110엔대가 되어도 미국과 일본의 통화 당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제기관투자자들이 엔화를 대거 팔고 있음. 이로써 엔화의 약세는 5월부터 더욱 가속화 되었으며, 미국채를 대량매입하겠다는 일본 총리의 발언에 힘입어 6월 11일 뉴욕외환시장에서는 29개월만에 최고치인 달러당 109.45엔을 기록하기도 했음.

〈 그림 4 〉 마르크화의 대미달러 환율



- 미국경제가 일본과 독일에 비하여 견실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96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된 마르크화에 대한 달러화 강세는 4월이후 그 속도가 줄었으나 6월중에도 계속 이어짐.
- 계속되는 독일의 경제침체와 이에 따른 독일의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서 마르크화가 엔화 및 유럽통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달러화에 대해 약세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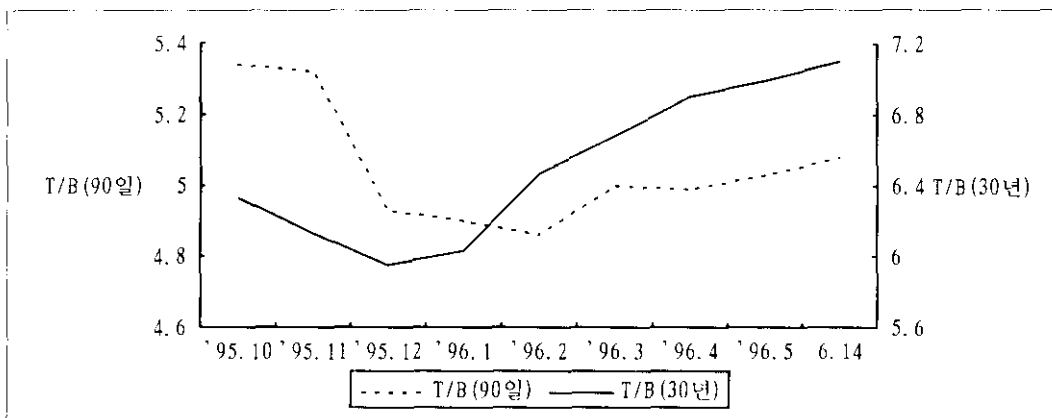
〈 표 26 〉 주요 국제금리의 추이

단위 : %

		1995	1996			
			1/4	4월	5월	6/14
미 국	재할인율	5.25	5.00	5.00	5.00	5.25
	프라임레이트	8.75	8.25	8.25	8.25	8.25
	T/B(90일)	4.93	4.93	4.99	5.03	5.08
	T/B(30년)	5.95	6.39	6.90	6.99	7.10
일 본	재할인율	0.50	0.50	0.50	0.50	0.50
	프라임레이트	1.63	1.63	1.63	1.63	1.63
독 일	재할인율	3.00	3.00	2.50	2.50	2.50
	프라임레이트	5.00	5.00	5.00	5.00	5.00
유로금리 (90일)	유로달러	5.63	5.35	5.50	5.50	5.59
	유로엔	0.63	0.67	0.67	0.59	0.54
	유로마르크	3.69	3.35	3.25	3.31	3.39

주 : 미국과 일본의 프라임레이트는 단기이고 독일은 롬바르트금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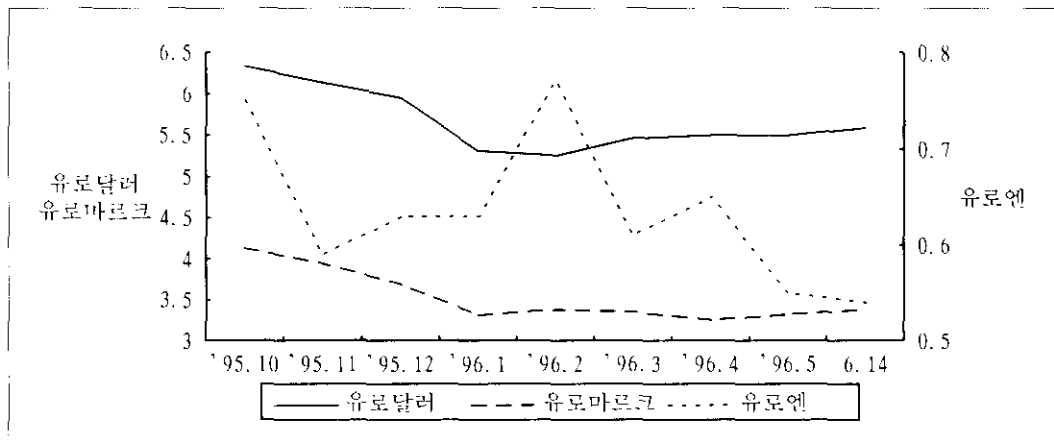
〈 그림 5 〉 미국금리 추이



동향과 전망

- 1월중 예산안 협상 타결이 지연됨에 따라 상승세로 돌아선 미국의 장단기 금리는 미국 경기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이외에 일본의 초저금리에 따른 엔화의 약세,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미국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노력, 미국채권으로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달러강세유지의 필요성 등도 금리 상승기조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림 6 〉 유로금리 추이



- 96년 1월에 들어서면서 유로금리는 지난해 선진국들의 경기가 부진함에 따라 하락세를 보였음. 이러한 전반적인 저금리의 상황에서 2월중에는 일본경제의 회복과 3월결산인 일본 기업들의 엔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유로엔의 금리가 상승세로 반전되기도 했음. 미국과 일본의 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양국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다소 희박하므로 4월이후 국제금리의 상승세는 미미하나마 소폭으로 유지되고 있음.

3. 국제원자재가격

〈 표 27 〉 주요 국제원자재 가격추이(기말기준)

	1995	1996				
		1월	2월	3월	4월	5월
브렌트유 (현물, 달러/배럴)	18.65	16.63	18.60	20.33	18.52	18.16
WTI유 (현물, 달러/배럴)	19.60	17.75	19.55	21.50	19.60	19.80
두바이유 (현물, 달러/배럴)	17.78	15.68	16.33	17.50	16.50	16.85
로이터상품가격지수 (1931.9.18=100)	2,092.2	2,175.5	2,135.6	2,134.0	2,148.4	2,106.6
소맥 (시카고, 센트/부셸)	512.3	519.5	508.0	499.3	508.9	528.8
옥수수 (시카고, 센트/부셸)	369.3	369.0	391.8	409.0	389.9	477.3
동 (런던, 파운드/MT)	2,844.5	2,565.0	2,531.5	2,554.0	2,550.2	2,547.5
알미늄 (런던, 달러/MT)	1,679.5	1,561.5	1,570.5	1,643.5	1,591.8	1,564.5

자료 : 한국은행, “주간해외경제”, 무역협회, “일간부역”

- 북반구 지역의 한파로 인한 난방용 유류의 수요증가와 미국등 주요 원유 소비 지역의 '즉시채고시스템'에 의한 채고 감소로 1월부터 3월까지 이어진 국제원유가격의 상승은 4월이후 그 상승세가 꺾임. 이는 이라크의 석유수출 재개결정과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OPEC 제 10차 총회에서 회원국별 쿼터를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확산되었기 때문임.

동향과 전망

- 연초에 전반적인 하락 안정세를 보인 비철금속가격은 알루미늄과 납의 경우 3월과 4월 중에 지난해 여름의 이상고온과 올 겨울의 이상한파로 인한 자동차용품의 수요증가로 인해 상승세를 보였음. 동의 경우 칠레를 비롯한 주요생산국들의 생산량 증가와 재고증가로 인하여 5월중 다시 하락세로 돌아섬.
- 기상 이변에 따른 전세계적인 작황 부진과 인구증가로 인해 올해 세계곡물재고가 사상 최저 수준이 될 것이라는 보고와 함께 국제 곡물가격은 4월까지 계속된 상승세를 보였음. 그러나 5월중 미국 경작지대의 기상상태의 호전으로 소맥의 경우 하락세로, 옥수수의 경우 가격의 상승폭이 감소하였음.

제 3 장

최근 경제의 평가와 경제운영방향

1. 최근 경제추이의 판단 및 향후 전망

- 지난 4/4분기중 경제성장률(GDP)이 6.8%(이전 4분기 평균성장률 9.7%)로 크게 낮아진 데 이어 올 1/4분기중에는 재정투자의 조기집행과 수출신장 그리고 민간소비의 회복에 힘입어 7.9%로 상승하였음. 그러나 향후 우리 경제는 엔화약세와 주력수출품목의 국제시황 부진으로 인한 수출과 설비투자의 둔화 그리고 공공부문 주도에 의한 건설투자증가의 한계 등으로 하반기중 성장률이 6.7%내외로 낮아지고 96년중 연간 성장률이 7%내외에 그치는 등 연중 경기둔화과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하반기중에 수출회복을 위한 뚜렷한 여건변화가 기대되지 않음을 감안할 때 민간 소비부문이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됨. 민간소비지출에 의존하는 성장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에서 향후 적정성장세의 유지를 위한 거시정책적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인 세계경제여건이 성장면에서나 교역, 금융면에서 안정적인 확장국면을 지속하고 상반기중 원화 가치가 달러화에 대해 절하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엔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냄에 따라 조선,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등의 수출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일부 수출주도품목의 시황이 좋지 않아 하반기중에도 수출증가세의 현저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반면에 설비투자의 둔화와 원화의 절하에도 불구하고

동향과 전망

수입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둔화추이를 보임으로써 큰 폭의 대외적자가 예상됨. 또한 약세로 전환한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의 효과는 2~3분기의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4/4분기이후에나 국제수지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대외적으로 볼 때, 일부 주력품목(전자,철강, 석유화학 등)의 수출이 반도체가격의 하락과 중국경제의 건축에 따른 수입감소 등으로 예상보다 부진한 가운데 엔화약세가 지속되고 일부 곡물과 원유가격의 강세 등은 수출신장세를 제약하고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외에 WTO체제의 본격화와 OECD가입추진에 따른 국내 시장 개방폭의 확대 그리고 11월중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對韓통상압력 강화 가능성 등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들 요인들은 농축수산물의 수입확대와 외자유입을 가속화시킴으로써 국제수지면에서 국내경제운용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됨.
- 대내적 요인도 총선이후로 미루어진 임금 및 노사분쟁, 총선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성 정책을 포함한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문제 그리고 체제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북한문제 등의 경제외적 부담요인이 적지 않은 가운데 유통시장의 개방, 수입품에 대한 거부감의 퇴조 등 실질적인 수입자유화의 진전으로 가속도가 붙고 있는 완성소비재의 수입확대 추세, 빠른 구조조정과 더불어 심화되고 있는 경기양극화현상과 매출감소와 채산성악화에 따른 기업의 자금난 등도 예상되는 과제들임.
- 우리경제는 연중 경기하장국면에서 적정성장률의 달성과 경상수지적자의 축소라는 당면한 과제에 대응해 나가되,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개방과정에서 국내금리와 물가를 선진국수준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책 그리고 경기둔화과정 속에서 경기양극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촉진시켜 나가야 하는 등 정책운영상의 부담요인을 안고 있음.
- 반면 지난 82년이래 국내소비자물가가 5%미만에서 안정되어 왔으며 93년이후의 경기상승기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거시경제를 운영한 결과 상반기중에도 전반적인 불가

와 금리수준은 안정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재정 또한 거의 균형상태를 유지하는 등 거시 정책환경은 다소 여유가 있어 앞에서 열거한 정책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한 유연한 거시 경제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거시경제운영의 평가와 정책운용방향

- 93년 1월을 경기저점으로 한 경기확장기간동안 균형재정과 안정적 통화공급 그리고 원화절상을 기조로 한 거시정책을 지속함으로써 경기과열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내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었음. 96년 하반기중 성장률은 6.7% 그리고 연간으로는 7.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거시경제운영은 지나친 경기수축을 경계하면서 상반기중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기적으로 급속한 환율변동의 충격이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위축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경기와 성장의 급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정부의 조심스런 경기관리노력이 중요하다 할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상반기중 재정 및 금융 그리고 원화가치의 안정 측면에서의 제반 거시경제정책운영은 지난 4분기중 위축되었던 실물경기를 안정시킬 수 있었으며 연중 거시경제운영의 기조를 확고히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향후 거시경제운영은 상반기중의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단기적으로는 하반기중 예상되는 경기수축국면의 적정화를 유도하고 중기적으로 잠재성장률수준의 성장속도를 회복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높은 국내금리는 그 자체로 산업의 높은 비용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자본자유화를 확대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경제로서는 내외금리차로 인한 거시경제적 비용을 치뤄야 함을 의미함. 따라서 내외금리차의 축소를 위해서는 현재의 금리안정화추이와 성장둔화과정에서의 유연한 통화신용정책이 요구됨.

동향과 전망

- 특히 상반기중 경험한 바와 같이 투자수요둔화와 물가안정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유연한 통화신용정책이 수요압력을 증대시켜 물가를 자극하기 보다는 유동성효과에 의한 시중실세금리의 하락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긍정적인 거시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경기수축기에 추가적인 통화긴축은 실세금리의 재상승과 기업투자마인드의 급격한 위축 및 기업부도의 증가 등 실물부문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상반기중 통화증가는 성장률하락과 기업의 자금수요둔화에 비하여 비교적 안정적이었음. 신탁계정의 총통화(M_2)편입(M_2 의 1.4%로 추산)을 고려하면 통화량의 확대공급이라고 할 수 없으나 자금가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공급됨으로써 금리가 안정추세를 나타내었던 것으로 판단됨.
- 최근 금리인하와 통화의 안정공급에 대한 당국의 공식적 의지천명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에 대한 일부 창구지도가 알려짐으로써 향후 통화수속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시중실세금리가 반등한 사실에 비추어 명실상부한 금리인하와 통화의 안정공급에 대한 정책을 일관성있게 시행함으로써 상반기중 실현되었던 금리인하추세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이와 더불어 균형적 재정정책은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수지흑자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대안으로서 활용되어야 할 것임. 현시점에서 재정흑자기조의 견지는 경상수지적자 그리고 해외차입에 의한 경상적자보전이라는 악순환을 막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판단되나 경기연착륙과 사회간접자본확충 등 정부투자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경기중립적 균형재정이 바람직할 것임.
- 95년의 고성장에 비하여 성장둔화가 예상되는 96년의 경우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경기수축에 따른 세수부진의 경우, 예산상의 세입이나 추경예산(경기조절 또는 사회간접자본투자 확충 목적)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조세행정력을 사용하기 보다는 재정고유의 경기조절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이 시행되는 것이 보다 바

람직할 것임.

- 높은 경제성장과 노동생산성의 증가과정에서 임금수준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일인당 국민소득에 비하여 전반적인 임금수준은 다른 나라보다 높은 반면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확대됨으로써 산업의 균형성장이나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기 어려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고학력, 고령 및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의 시행과 함께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일이 시급함.
- 현행 노동관련법상 노동시장에 대한 경직적인 규제는 거의 완전노동시장에 가까운 국내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약하고 있으므로 관련규제들을 제거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이 요구됨. 예컨대 사실상 1000여개 업체에 1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파견근로자가 현행 직업안정법상 불법화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기본권이나 근로조건의 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나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이 지연되고 있음.

부 록

경제정책정보

주요경제통계

* 경제정책정보 *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6/19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용재 유통구조 개선사업 본격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산업용재의 열악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산업용재 유통구조 개선사업 계획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주요 원자재 안정공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 및 비철금속 등 주요 원자재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한 원자재 안정공급 지원방안 주요내용
6/18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정보 보고기관 지정·운영 및 관리규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 위해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등을 위해 '96.7.1부터 제정·시행되는 위해정보 보고기관 지정·운영 및 관리규정 주요내용
6/14	통상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품 품질표시 및 안전검사품목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6.14 민간자율의 품질관리체제 확보를 위해 공산품 품질표시 및 안전검사품목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개정된 품질경영촉진법 시행규칙
6/13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6.12 개최된 경제차관회의시 재정경제원이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통상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보증체제인증(ISO 9000)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면 개정·고시된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주요내용
6/8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년 하반기 탄력관세 운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6.7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시 심의된 '96년 하반기 탄력관세 운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 활성화 추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6.7 나용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개최된 대외경제조정위원회회의시 심의된 외국인투자 활성화 추진방안

부록

일자	주부부처	주요정책
6/8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업무개선 작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6.7 개최된 증권업무 및 증권감독 관련 법령·규정·제도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구성된 증권업무개선작업반 회의 내용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3개년(97-99)계획 수립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평균적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 수립·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3개년(97-99)계획 주요내용
6/6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기계구입자급에 대한 외화대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자본재산업 육성과 경상수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96.7.1 부터 시행되는 국산기계구입자급에 대한 외화대출 주요내용
6/4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해외인증획득 지원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 강화방안 주요내용
5/30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분야 무역수지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경기 양극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중소기업분야 무역수지 개선방안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채 도입용 상업차관 도입 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5.29 한국NTK공구(주)에 대한 시설채 도입용 상업차관 도입 인가 내역
5/27	통상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가입에 대비한 폐기물교역 제도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5.11 우리나라가 OECD 환경위원회 1차 규정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는 국가간 이동폐기물관리제도 개선방향
5/25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신전문금융업 구조조정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여건의 변화속에서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쟁력있는 발전을 위해 마련한 여신전문금융업 구조조정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규제완화과제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5.23 재정경제원이 행정쇄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16개 금융분야 규제완화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일자	주부부처	주요정책
5/24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금융회사 업무운용지침 개정 - '95.12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종합금융회사와 투자금융회사의 업무가 통합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종합금융회사 업무운용지침 주요 개정내용
5/23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ISO 9000 인증획득 본격지원 - '96.3~4월동안 ISO 9000 인증획득을 위해 진단지도를 신청한 269개 중소기업에 대한 정밀진단 실시 결과에 따른 지원계획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산업의 국제화 추진방안 - 국내 증권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외국증권기관의 국내진출 관련 제도 개선방안
5/22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 자유화 확대방안 - '96.6.1부터 시행되는 국내기업의 원활한 해외사업활동 지원등을 위해 마련한 해외투자 자유화 확대방안
5/21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의 국내 원화채권발행 자유화방안 - 자본거래자유화계획에 따라 '96.7.1부터 시행되는 외국의 국내 원화채권발행 자유화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연계 해외증권발행제도 개선 - 행정규제완화 추진 일환으로 은행의 해외주식예탁중서 발행근거 마련을위해 추진하는 주식연계 해외증권발행제도 주요 개선내용
5/18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제도개혁계획상 '96 추진계획 중 조치내역 - 외환제도개혁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96년도 개혁추진계획 중 조치내역
	통상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 '96.5.17 금융산업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장기산업발전비전 산업정책심의회 상정·확정 - '96.5.17 개최된 산업정책심의회시 확정·공포된 통상산업부가 수립한 2000년대 한국 산업발전의 비전과 전략 요약

부록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5/17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안정 및 물자수급 원활을 위한 곡물 및 시멘트의 관세 인하 - '96.5월중 물가안정 도모와 물자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곡물류 및 시멘트에 대해 관세 인하 방침
5/16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정책의 기본방향 -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대기업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주요내용
	통상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재산권관련 불공정수출입행위에 대한 기준 제정 - '96.5.16 무역위원회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정·고시한 지적재산권관련 불공정수출입행위의 유형 및 기준 주요내용
5/15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관련 규제의 실질적 완화 추진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립·추진하는 종합적인 규제완화 대책 주요내용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신탁회사 설립등에 관한 인가기준 - 증권산업 개편방안에 따라 마련한 투자신탁회사 설립에 관한 인가 기준
5/14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요약) -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세계화 촉진을 위한 기존 정책규제 개혁방안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개방 확대 - 우리경제의 세계화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외국인투자개방 확대계획
5/11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성 보험차익의 비과세요건 조정 - '96.5.7 개최된 국무회의시 금융상품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상정·의결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통상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수지 안정화 대책 추진 '96.5.10 개최된 제12차 경제장관회의시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이 보고한 최근의 무역수지 동향 및 대책 주요내용
5/10	통상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배치법시행령·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96.5.11 공장설립정보망 구축 및 수도권에서의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입법예고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일자	주무부처	주요 정책
5/9	한국조세연구원	○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의 중·장기 발전방향 - '96.5.9 개최된 신경제 장기구상 공개공청회시 안중범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조정부장이 발표한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의 중·장기 발전방향 제하
	재정경제원	○ 해외교포 재산반출 허용 - 나용배 재정경제원장관이 해외교포의 원활한 현지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고시한 제2차 해외교포 재산반출 지침
	재정경제원	○ 신용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추진 - '96.5.9 신용관리기금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입법예고된 신용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5/2	중소기업청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관행 개선대책 - 중소기업청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마련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관행 개선대책 주요내용
4/29	재정경제원	○ 선물거래법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 '95.12.29 제정·공포된 선물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된 선물거래법 시행령(안) 주요내용
4/25	재정경제원	○ 대기업 여신관리 개편 - 대기업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한 여신관리제도 개편방안 및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주요내용
4/18	한국은행	○ 예금 지급준비율 인하 - '96.4.18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6.4.23부터 시행키로한 은행 예금지급준비율 인하 내용
	재정경제원	○ 신탁제도 개선방안 '96.5.1부터 시행키로한 은행신탁이 장기·실적배당상품으로서의 본질에 맞게 발전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은행신탁제도 개선방안

부록

* 주요경제통계 *

경제성장률, 소비, 투자

년월중	경제성장률		1인당 GNP	소비		투자		
	GDP	제조업		총소비	민간소비	총고정투자		건설
	전년동기대비(%)		US\$	전년동기대비(%)				
1990	9.5	9.7	5,883	10.1	10.7	25.9	18.8	31.2
1991	9.1	9.1	6,757	9.3	9.5	12.6	12.1	13.0
1992	5.1	5.1	7,007	6.8	6.6	-0.8	1.1	-0.6
1993	5.8	5.0	7,513	5.3	5.7	5.2	0.1	8.9
1994	8.6	10.4	8,508	7.0	7.6	11.8	23.6	4.5
1995	9.0	10.7	10,076	7.2	7.9	12.4	15.9	9.9
1995.10	6.8	7.5	-	6.4	7.1	7.4	1.5	11.7
11	6.8	7.5	-	6.4	7.1	7.4	1.5	11.7
12	6.8	7.5	-	6.4	7.1	7.4	1.5	11.7
1996.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무역, 국제수지

년월중	무역				국제수지			외환 보유액 ¹⁾	환율		
	수출 (FOB)		L/C	수입 (CIF)		I/L	무역 수지			경상 수지	종합 수지
	백만 달러	전년 동기대비(%)		백만 달러	전년 동기대비(%)		백만달러			년/월말	
1990	65,016	4.2	4.4	69,844	13.6	21.8	-2,004	-2,179	-274	14,822	716.4
1991	71,807	10.5	5.2	81,525	16.7	9.4	-6,980	-8,728	3,741	13,733	760.8
1992	76,632	6.6	4.7	81,775	0.3	10.3	-2,146	-4,529	4,898	17,154	788.4
1993	82,236	7.3	6.2	83,800	2.5	8.5	1,860	385	6,542	20,262	808.1
1994	96,013	16.8	15.7	102,348	22.1	40.3	-3,145	-4,531	2,822	25,673	788.7
1995	125,058	30.3	13.4	135,119	32.0	33.1	-4,749	-8,817	3,079	32,712	774.7
1995.10	11,524	30.0	3.5	11,732	29.0	21.4	-20	-298	412	32,168	756.5
11	11,463	24.3	0.7	11,876	24.1	32.5	158	-89	986	33,224	769.2
12	11,757	9.9	-3.5	11,806	11.3	10.5	252	-287	676	32,172	774.7
1996.1	10,067	29.7	10.7	12,046	34.4	23.9	-951	-1,524	-554	33,264	784.3
2	9,877	18.3	-8.4	11,480	16.1	9.3	-1,164	-1,770	113	33,115	780.7
3	11,789	17.9	-5.2	12,151	4.2	12.0	106	-812	881	33,451	782.7
4	10,721	5.5	-5.8	12,729	14.8	-7.5	-	-	-	35,930	778.7

주: 최근 계수에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장기자본수지 기준

물가, 실업률, 이자율

년월중	물가 ²⁾		실업률 (%)	제조업 명목임금 전년동기 대비(%)	통화 ³⁾		이자율		
	생산자	소비자			M ₁	M ₂	재할인율	정기예금 금리 ⁴⁾	회사채 수익률 ⁵⁾
	전년동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1990	4.2(7.2)	8.6(9.4)	2.4	20.2	18.1	21.2	7.0	10.0	16.5
1991	4.7(1.9)	9.3(9.3)	2.3	16.9	16.1	18.6	7.0	10.0	18.9
1992	2.2(1.6)	6.2(4.5)	2.4	15.7	32.3	18.4	7.0	10.0	16.2
1993	1.5(2.0)	4.8(5.8)	2.8	10.9	22.1	18.6	5.0	8.5	12.6
1994	2.8(3.9)	6.2(5.6)	2.4	15.5	11.9	15.6	5.0	8.5-10.0	12.9
1995	4.7(3.4)	4.5(4.7)	2.0	9.9	11.6	15.5		7.5-10.0	13.8
1995.10	3.9	4.4	1.9	13.8	10.0	13.9	5.0	9.0-10.0	12.2
11	3.4	4.3	1.8	10.6	9.7	13.1	5.0	9.0-10.0	12.0
12	3.4	4.7	1.8	3.5	12.7	13.7	5.0	7.5-10.0	11.7
1996.1	3.5	5.1	2.1	-0.1	8.2	12.5	5.0	7.5-10.0	12.0
2	3.7	5.1	2.3	-	14.1	14.8	5.0	7.5-10.0	11.9
3	2.2	4.5	2.2	-	11.5	14.6	5.0	7.5-10.0	11.8
4	2.0	4.6	-	-	9.7	14.0	5.0	-	11.0

주: 2) () 내는 12월의 전년동기대비
 3) 평잔기준
 4) 1년이상 2년미만 정기예금금리
 5) 규리연동부사채

산업 생산, 수요

년월중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제조업	가동률 지수	전국 소매액	소비재 출하 ⁶⁾	국내기계 수주 ⁷⁾	기계류 수입 ⁸⁾	건설 수주	건축 허가 면적	공업용	주거용
1990	8.9	2.6	10.5	15.2	38.8	20.3	55.8	31.4	17.0	49.3
1991	9.7	1.5	7.8	11.4	2.2	20.0	13.9	-9.7	6.7	-16.7
1992	5.9	-1.4	5.5	5.2	-5.2	-5.2	6.4	-10.0	-12.4	-7.4
1993	4.2	-0.6	6.4	4.0	12.1	-5.7	19.3	24.5	15.2	26.7
1994	11.0	4.4	6.1	9.2	26.9	34.2	18.5	-1.3	16.8	-8.5
1995	12.1	-0.4	8.6	7.4	15.8	37.8	21.2	1.0	3.3	-1.2
1995.10	9.8	-3.4	5.9	3.2	6.6	26.7	32.3	2.0	6.1	-6.9
11	7.8	-4.0	7.3	6.7	2.2	20.5	19.4	-25.8	-9.2	-38.2
12	7.0	-5.1	12.6	8.7	11.4	14.7	13.4	-10.4	-15.0	-11.1
1996.1	12.0	1.1	3.8	6.2	34.3	24.3	38.0	16.6	23.0	17.8
2	7.8	-1.6	15.6	6.3	6.0	8.5	91.8	-4.0	17.7	-5.4
3	5.5	-3.1	10.5	3.8	-5.1	1.6	30.1	-20.9	-43.8	-20.4
4	-	-	-	-	-	-	-	-	-	-

주: 6) 내수용 7) 내수용, 선박제외 8) 내수용, 일반기계